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김상배 지음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0003084)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

김상배 지음

이 책은 정보혁명에 대한 정치학적 탐구의 작은 결실이다. 필자는 지난 십여 년간의 작업에서 ‘정보혁명’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반도체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변화를 ‘혁명’이라고 칭하기를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정보화’나 ‘정보시대’ 같은 순화된 표현을 주로 사용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널리즘적 수사가 아니라 사회과학적 용어로서 정보혁명이라 부르기엔 어색하지 않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믿음을 굳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아직 ‘지식혁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기술혁명’을 넘어서 ‘정보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보혁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근대 초기 인쇄혁명의 그것에 비견될 만큼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이 정치학적 시각에서 살펴본 주제는 ‘권력’의 변화이다. 그런데 정보의 ‘혁명’이 권력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서 이 책이 선택한 용어는 ‘혁명’이 아니라 ‘변환(變換, transformation)’이다. 변환이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내용의 변화보다는 ‘형태(form)’의 ‘변화(trans)’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리 정보혁명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권력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보혁명은 기존 권력을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권력을 출현시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보혁명이라는 물질·지적 환경의 변환에 직면하여 권력은 그 형태를 교묘하게 바꾸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보의 ‘혁명’은 권력의 ‘변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렇게 ‘혁명’과 ‘변환’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과제이다.

이 책은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이라는 경험적 사례의 탐구를 통해서 21세기 정치현상을 탐구하는 새로운 권력이론의 개발을 지향한다. 정보혁명이 권력 변환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기존 연구와 이 책의 차이점은 매개변수로서 동원한 ‘네트워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사회과학 분석에 네트워크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네트워크라는 말이 태생적으로 학술개념이라기보다는 일상용어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상호 연결된 노드(node)들의 집합’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근거해서 보면, 인간 만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논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단순 네트워크’는 아니다. 이 책에서 주목한 것은 ‘망중망(網重網)’, 즉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network of networks)’로 이해되는 독특한 의미의 ‘복합 네트워크’이다.

아직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망중망이라는 말은 정보혁명이나 권력변환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먼저, 이 책에서 파악한 정보혁명의 고유한 속성은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가 작동케 하는 망중망의 토양을 제공한다. 정보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네트워킹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지식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메타 지식(meta-knowledge)’의 변환에서 발견된다. 사실 이 책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타

(meta)’라는 접두어는 망중망이라는 말을 만든 취지와 맥이 닿아 있다. 인터넷으로 응축되는 디지털 메타 지식의 발달은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 했을 정도로 광범위한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출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터넷은 상호 모순된 두 얼굴을 가진 네트워크들을 엮어내는 망중망의 대명사이다.

또한 네트워크와 망중망은 권력변환의 내용을 읽어내는 데서도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정보혁명을 배경으로 활성화되는 권력은 더 이상 어느 행위자가 지닌 속성이나 그가 보유한 자원에서 우러나오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드와 노드들을 엮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들의 관계적 맥락을 활용하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 전체에 자신에게 유리한 표준과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 과정에서 행사되는 권력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권력은 고정된 자원이나 주어진 구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드들의 관계에 새로이 질서를 부여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동적인 권력이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망중망의 권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파악된 권력을 통칭해서 ‘네트워크 권력’이라고 명명했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에 의지하여 지배의 메커니즘은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변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혁명이 만들어내는 권력변환 드라마의 백미는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를 받는 자들이 새로이 득세하게 되는 대목에서 찾아진다.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확산은 뿔뿔이 흩어져 있던 소수자들이 모여서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힘은 위로부터 동원되는 모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모델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 이 책이 집필된 애초의 동기나, 이 책에서 여러 장에 걸쳐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바의 핵심도 바로 정보혁명으로 인한 네트워크, 즉 망중망의 부상이 새로운 대항세력

의 창발(創發, emergence)에 획기적인 조건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권력변환의 논의가 여기에까지 이르면 이 책에서 표제로 내건 ‘권력(權力, power)’이라는 용어가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의 ‘power’와 대칭해서 사용하는 권력이라는 말은 주로 ‘지배하는 힘’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 권력에서 ‘권(權)’ 자는 본디 나무(木) 이름이었는데, 저울추(衡)를 의미하는 나무 막대기라는 뜻으로 통용되다가 저울추를 움직이는 힘, 즉 경중(輕重)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담게 되었다고 한다. 권력이란 저울질을 장악하는 지배의 힘을 지칭하는 용어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보혁명의 맥락에서 지금 우리의 눈앞에 새로이 출현 중인 ‘대항하는 힘’을 현실화된 지배의 ‘권력’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잠재적으로 존재하다가 이제야 세력(勢力)을 형성하는 힘, 굳이 명명하자면 ‘저력(底力)’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구분은 유럽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위로부터 행사되는 힘으로서의 ‘권력(*potestas, puissance, macht*)’과 아래로부터 생성되는 힘으로서의 ‘역능(力能, *potentia, puissance, kraft*)’의 구분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은 ‘권력’과 ‘저력(또는 역능)’을 개념적으로 가능한 한 구별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권력’으로 통칭한 때도 있다.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의 동학은 지배를 강화하려는 기성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력이 경합하는 구도로 그려진다. 지배권력이 정보혁명의 성과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권력을 정교하게 행사하는 것만큼 대항세력의 저력도 네트워크의 메커니즘으로부터 끌어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보혁명이 야기하는 권력변환은 지배의 네트워크와 대항의 네트워크가 경합하는 ‘네트워크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로 개념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변환의 망제정치는 어떠한 조건에서 출현했으며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혁명이라는 변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망제정치를 관통하는 권력은 어떻게 그 형태를 바꾸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권력변환과 망제정치의 정체를 밝히고자 이 책이 주목한 사례들은 국가 같은 공식적인 조직의 외곽에서 작동하는 비공식적인 생활 속 권력이다. 이러한 권력이 예전보다 좀 더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작동할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은 다름 아닌 정보혁명이다. 기술과 정보, 그리고 지식의 외양을 한 이러한 권력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 지배권력의 사례로 다룬 윈텔리즘(Wintelism),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 구글아키(Googlearchy), 실리우드(Siliwood) 등이 그러한 특징을 지닐 뿐만 아니라, 대항세력의 사례로 다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사회운동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견 권력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닥쳐올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동방식을 선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학적 관심을 끌 만하다.

이 책은 지난 수년간 필자가 탐구한 주제인 21세기 권력론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전의 작업들이 주로 ‘지식정보 정치학’의 시각에서 지배권력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을 원용하여 지배권력과 대항세력이 결합하는 구성적 메커니즘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시도했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루는 정보와 권력, 그리고 네트워크의 주제는 애초에 필자가 국제정치학 분야를 염두에 두고 구상·진행했던 것들이다. 그러다가 기초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책으로 내놓게 되었다. 정보혁명과 네트워크로 보는 권력의 세계정치에 대해서는 후속작업을 기약해 본다. 이 책에서 제시된 정보혁명과 네트워크의 논리가

앞으로 더욱 창발하여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을 얻었다. 특히 정보세계정치연구회와 기술사회연구회의 월례 세미나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토론은 이 책의 작업에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 책은 ‘집합지성’의 노력에 바탕에 깔고 있다. 이러한 집합지성의 과정에서 항상 ‘중심성’의 역할을 맡아주신 하영선 선생님께는 따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항상 신실한 후원자이신 손열, 전재성 두 분 선배님께도 감사드린다. 또한 이 글의 출판을 흔쾌히 맡아준 도서출판 한울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밖에도 일일이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도 많다. 특히 가족들의 성원과 아내 선주의 격려가 없었다면 작업을 끝맺기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년 동안 곁에서 말벗이 되어준 아들 하원도 큰 힘이 되었다. 끝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는 동안 우리 곁을 떠나신 아버님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10년 6월 14일

데이비스에서

김 상 배

• 머리글 5

약글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1.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16
	2. 공룡의 긴 꼬리 엮기	21
	3. 딱딱한 골리앗과 다윗들의 군대	26
	4.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	30

1부 정보혁명의 이해 37

제1장 메타 지식으로 보는 정보혁명	1. 메타 지식의 개념적 이해	40
	2. 기술의 코드화	46
	3. 정보의 디지털화	55
	4. 지식의 탈체계화	66

제2장 네트워크로 보는 정보혁명	1. 네트워크의 개념적 이해	78
	2. 인터넷과 월드와이드웹	87
	3. 정보와 지식의 복합 네트워크	93
	4. 사람들의 복합 네트워크	102

제3장 망중망으로 보는 정보혁명	1. 망중망의 이론적 논의	112
	2. 기술체계로서 인터넷의 망중망	121
	3. 정보매체로서 인터넷의 망중망	127
	4. 콘텐츠 매체로서 인터넷의 망중망	133

2부 지배권력의 변환 141

제4장 원텔리즘과 인터넷 거버넌스	1. 메타 지식으로 보는 원텔리즘	144
	2. 네트워크로 보는 원텔리즘	150
	3. 메타 지식으로 보는 인터넷 거버넌스	155
	4. 네트워크로 보는 인터넷 거버넌스	162

제5장		
구글아키와 실리우드	1. 메타 지식으로 보는 구글아키	171
	2. 네트워크로 보는 구글아키	179
	3. 메타 지식으로 보는 실리우드	187
	4. 네트워크로 보는 실리우드	193
제6장		
지배의 네트워크 권력	1. 네트워크로 보는 지배권력	202
	2. 기술구조의 프로그래밍	211
	3. 개방성과 호환성의 통제	216
	4. 제도와 규범의 프로그래밍	226
	5. 정체성의 프로그래밍	235
<hr/>		
3부 대항세력의 창발		245
<hr/>		
제7장		
오픈 소스의 대항담론과 리눅스	1. 리눅스의 도전	248
	2. 오픈 소스의 대항담론	253
	3. 오픈 소스의 복합 네트워크	261
	4. 오픈 소스 대항담론의 확산	269
제8장		
위키피디아와 인터넷 커뮤니티	1. 위키피디아의 도전과 대항담론	273
	2. 위키피디아의 복합 네트워크	281
	3. 인터넷 커뮤니티의 도전과 대항담론	290
	4. 인터넷 커뮤니티의 복합 네트워크	297
제9장		
온라인 사회운동과 촛불집회	1. 정보혁명 시대의 사회운동	305
	2. 2008년 촛불집회의 사례	311
	3. 촛불집회의 복합 네트워크	318
	4. 촛불집회의 대항담론과 지식정치	326
제10장		
대항의 네트워크 권력	1. 네트워크로 보는 대항저력	336
	2. 소수자들의 세 모으기	345
	3. 디지털 다중의 집단행동	351
	4. 대항규범의 프로그래밍	359
	5. 정체성의 자기 조직화	366

맺음 권력변환의 망제정치	1.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379
	2. 지식구조로 보는 권력변환	383
	3. 정보혁명과 지식구조의 변환	390
	4. 지배와 대항의 망제정치	397
	5. 메타 거버넌스의 과제	404
• 참고문헌 415		
• 찾아보기 439		

그림차례

〈그림 1〉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17
〈그림 2〉 긴 꼬리 법칙	22
〈그림 3〉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적 구도	32
〈그림 1-1〉 데이터-정보-지식-지혜의 사슬	42
〈그림 1-2〉 기술·정보·지식의 삼원 모델	45
〈그림 2-1〉 멱함수의 법칙	85
〈그림 3-1〉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유형	115
〈그림 3-2〉 다섯 가지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	116
〈그림 3-3〉 인터넷의 기술적 속성	126
〈그림 3-4〉 정보매체와 세계질서의 상관관계	129
〈그림 7-1〉 컴퓨터 운영체계의 유형 구분	254
〈그림 11-1〉 지배와 대항의 망제정치	398

정보혁명과 권력변환

INFORMATION REVOLUTION & POWER TRANSFORMATION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권력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사실 지식이 권력이라는 말은 정보혁명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오랫동안 들어왔다. 아마도 가장 흔히 인용되는 지식과 권력의 논자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를 살았던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일 것이다. 베이컨에 의하면, 지식의 목적은 지적 유희나 개인적 명성의 추구가 아니라, 과학을 통한 자연의 통제와 학문의 발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인류문명의 진보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은 자연의 은밀한 운동과 인과적 원리를 발견함으로써 인류제국의 경계를 확장하고 모든 가능한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권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권력이라는 관념은 서구가 중세로부터 근대로 이행하던 시기를 단적으로 반영한다. 실제로 베이컨적 의미의 지식과 권력의 관념

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들은 부국강병책을 추구하고 제국주의적 팽창을 추진한 바 있다(Bacon, 1624).

이러한 베이컨의 관념은 비록 4백여 년 전에 출현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식이 권력이라는 논의의 화두이다. 그러나 베이컨의 시대에 비해 크게 달라진 지식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가 말한 지식이 권력이라는 명제를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보혁명을 논하는 오늘날의 지식과 권력의 관념이 근대 초기 지리상의 발견과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았던 베이컨의 관념과 그 의미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지식이 권력이라는 사실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권력의 의미를 갖는 지식의 내용과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권력의 양식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김상배 엮음, 2008). 정보혁명 시대에 되새겨보는 지식이 권력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에 베이컨이 정보혁명 시대에 나타난다면 어떠한 의미로 지식은 권력이라고 말할까?

1.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세간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 중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세 단계’라는 이야기가 있다(<그림 1> 참조). 그 세 단계라는 것이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니다. 제1단계로 냉장고의 문을 열고, 제2단계로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고, 제3단계로 냉장고 문을 닫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썰렁한 농담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 다양하게 변형된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그중에서도 백미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한 단계’이다. 냉장고 앞에 코끼리를 데려다 놓기만 하면, 그 코끼리가 스스로 알아서 냉장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 단계’ 이야기는 아날로그 시대의 버전이란단.

〈그림 1〉 냉장고에 코끼리 넣기



디지털 시대 버전의 ‘한 단계’는 조금 더 황당하다. 컴퓨터 앞에 코끼리를 데려다 놓으면, 코끼리가 인터넷으로 그 방법을 검색해서 냉장고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책 모두에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정작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코끼리가 인터넷으로 냉장고에 들어가는 방법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퀴즈를 내보자. 컴퓨터 앞에 앉은 코끼리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할까? 이 퀴즈의 답은 ‘네 단계’이다.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제1단계로 컴퓨터의 전원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 운영체제’가 부팅되고 바탕 화면이 뜬다. 제2단계는 바탕 화면에 있는 ‘웹 브라우저’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 제3단계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인터넷 주소, 즉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거나 이미 만들어 놓은 북마크(bookmark)를 클릭하여 원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찾아간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접속되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제4단계이다.

물론 이러한 네 단계에 예외적인 경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운영체제와 웹 브라우저를 결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려는 업계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더라도 제1단계와

제2단계는 여전히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단계들이다. 간혹 웹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로 특정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설정해 놓은 경우 제3단계가 생략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은 웹 브라우저를 시작하는 동안 이 두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된 것일 뿐이다. 이 밖에도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어서 제4단계까지 가지 않고 제3단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정보홍수의 시대에 검색 엔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이상의 네 단계는 아무리 똑똑한 코끼리라도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gateway)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 관문에서는 문지기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실제로 정보산업과 인터넷의 역사를 돌아보면, 각 단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고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지니는 특징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경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놓고 벌이는 ‘표준경쟁(또는 표준화)’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표준경쟁에서 ‘사실상(*de facto*) 표준’이라는 열쇠를 획득한 자가 각 관문을 지배하는 문지기로서 행세하게 된다.

제1단계의 컴퓨터 운영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컴퓨터 아키텍처 표준경쟁이 벌어졌다. PC(Personal Computer) 산업의 역사를 보면, 애플의 매킨토시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더 낫다고 평가되었지만, 세계시장의 사실상 표준은 IBM 호환 기종이 장악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쓰는 PC의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계와 인텔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탑재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2단계와 관련해서는 ‘브라우저 전쟁’으로 알려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의 표준경쟁이 벌어졌다. 브라우저 전쟁의 제1라운드는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와 이에 도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간에 벌어졌다. 최근의 제2라운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해서 오픈 소스(open source)의 깃발을 앞세운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와 검색분야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구글의 크롬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제3단계의 관문은 주로 도메인 이름 체계의 형식을 떠는 인터넷 식별체계의 ‘표준화’와 관련이 있다. 앞서 두 관문과 달리, 세 번째 관문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제도화 메커니즘을 통해서 법률상(*de jure*) 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현재 주류를 이루는 영문자 위주의 도메인 이름 체계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라는 기관이 문지기 역할을 맡고 있다.

제4단계는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의 표준경쟁이다. 초기에는 야후와 같은 업체들이 개발한 디렉터리 방식의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 검색 시장의 패권은 웹 페이지 간 링크(link)의 아키텍처에 착안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소셜 서치(social search)나 시맨틱웹(semantic web)같이 ‘관계’와 ‘의미’에 기반을 둔 검색이 부상하고 있다.

제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이들 분야의 특징은 모두 소프트웨어나 프로토콜, 또는 코드나 알고리즘 같은 디지털 프로그램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컴퓨터는 단순한 쇠덩어리에 불과하고 인터넷에 올린 정보도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신세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컴퓨터 하드웨어나 인터넷의 물리망을 활용해서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소비하는 거의 모든 과정의 저변에는 바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동시에 인터넷의 바다에 어지럽게 떠다니는 정보와 지식에 ‘질서’를 부여하는 메타 지식(meta-knowledge)의 체계이다. 여기서 메타 지식

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는 ‘지식에 대한 지식’ 또는 ‘지식을 엮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 디지털 메타 지식은 이 책이 제시하는 첫 번째 키워드이다. 제1장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혁명은 바로 디지털 메타 지식의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메타 지식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엮어서 지식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은 단순히 좋은 기술이나 유용한 정보의 생산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기술표준의 획득을 지향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플랫폼을 장악함으로써 그 위에 올라서는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컴퓨터 사용의 방향을 설정한다. 이러한 권력은 디지털 코드와 검색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정보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혹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면, 특정 정보는 검색 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그러면 그 정보는 인터넷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제6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은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은 우리 삶에 ‘표준(標準, standards)’을 세우는 권력을 의미한다(김상배, 2007). 표준권력은 기준을 제시하고 평균을 재는 행위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준은 권력이다. 아무나 이러한 표준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논한 디지털 메타 지식을 장악한 자만이 컴퓨터와 인터넷 분야에서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만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그 표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아예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 사용할 수는 있더라도 지배표준과 호환이 되지 않는 번거로움을 대가로 치러야만 한다. 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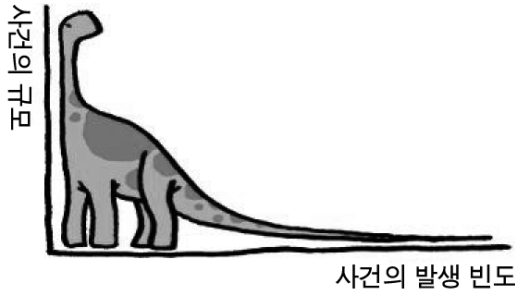
한 표준의 권력이 발휘하는 위력은, 그것이 디지털 프로그램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삶, 그리고 사회제도와 규범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 메타 지식의 표준권력은 점점 더 교묘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탈바꿈하면서 그 지배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이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러한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은 한층 더 깊숙이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이러한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적 속성을 뻔히 알면서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가는 디지털 메타 지식의 특성은 사용자 스스로가 대안적인 지식체계를 개발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보혁명은 위로부터 부과되는 지배권력의 정교화와 비대화라는 비판적 전망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혁명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이번에는 힘없는 약자들에게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지는 이야기이다.

2. 공룡의 긴 꼬리 얽기

인터넷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중 하나로 ‘긴 꼬리(long-tail)’라는 것이 있다 (Anderson, 2006).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코끼리가 아니라 공룡이다. 공룡이라고는 하지만 덩치 큰 공룡의 ‘몸통’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길고 가느다란 공룡의 ‘꼬리’에 대한 이야기이다. ‘긴 꼬리’ 이야기는 규모가 큰 사건은 드물게 발생하고, 작은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소위 멱함수의 법칙

〈그림 2〉 긴 꼬리 법칙



(power-law)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추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멱함수의 그래프에서 X축을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나타나는, 발생빈도는 높지만 그 사건의 규모는 미미할 정도로 작은 사례들을 공룡의 긴 꼬리에 비유한 것이다. ‘긴 꼬리’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하나의 꼬리들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꼬리들이 뭉치면 공룡의 몸통에 못지않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상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0퍼센트의 역할과 힘을 발휘한다는 소위 ‘80대20 법칙’¹⁾의 설명을 뒤집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세상의 80퍼센트를 차지하면서도 20퍼센트의 역할도 못하던 이들이 뭉쳐서 감히 80퍼센트의 힘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긴 꼬리들이 뭉쳐서 80퍼센트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하는 데에는 인터넷의 확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제2장에서 서술된 대로, 인터넷은 뽀뽀이 흩어져 있던 소수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1) ‘80대20 법칙’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부의 불균형 현상으로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장했다.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분석해 봐도 이러한 부의 불균형 비율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법칙’이라고까지 불리게 되었다.

를 구성하는 토양을 만들어주었다. 특히 인터넷은 참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적은 비용과 작은 관심만으로도 만들어지는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네트워크’를 가능케 했다.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일들이 이제는 인터넷이 있기에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나 백과사전의 편찬에 아마추어들도 한 줄 거들어 쓸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이 없었으면 골방에만 묻혀 있었을 마니아들이 자기들만의 취향을 중심으로 사이버 공간의 공개된 장에 모여서 전문가 못지않은 비평을 내놓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은 기술과 정보, 그리고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 사람들의 행동과 관념, 그리고 정체성까지도 엮어주는 ‘사회 네트워크’의 등장을 가능케 했다. 앞 절의 논의가 ‘지식을 엮는 지식’, 즉 메타 지식의 응집체로서 인터넷의 이야기였다면, 사회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를 엮는 네트워크’, 즉 메타 네트워크(meta-network)로서 인터넷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웹 2.0’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웹 2.0은 개방과 참여와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사용자 주도의 웹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누군가가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웹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웹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단 인터넷이 만들어져서 사용자들에 의해서 쓰이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래머들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웹 2.0의 기치 아래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에 도전하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적인 세(勢) 결집이 발생하는 것이다.

웹 2.0으로서의 인터넷은 소수자들의 세를 모으는 차원을 넘어서 지배권력의 규범에 도전하는 대항담론의 형태를 띤다. 최근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례는 앞서 언급한 제1단계 관문, 즉 컴퓨터 운영체제 분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 대항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리눅스의 도전이다. 또한

제2단계의 관문인 웹 브라우저의 분야에서도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웹 브라우저 소프트웨어인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꾸준히 그 세력을 불려가고 있다. 제7장에 밝힌 바대로 리눅스와 파이어폭스의 사례는 모두 지적 재산권의 규범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행태에 대한 카피레프트(copyleft), 즉 정보공유의 담론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나타난 오픈 소스의 움직임은 현재 제8장에서 다루는 온라인에서의 정보편집의 활동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례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의 약진이다. 이 밖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협업도 사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기성의 지식권력에 도전하는 사례이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긴 꼬리의 기세는 최근 오프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구화와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회운동이 국민국가의 내부와 외부에서 출현하고 있다. 민감한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개인과 단체, 하다못해 테러집단들까지도 인터넷에 의지하여 행동을 조직한다. 휴대전화와 유·무선 인터넷으로 무장한 스마트몹(smart mob)들이 깜짝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제8장에서 다루고 있듯이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놓고 인터넷 토론방에서 의견을 결집해 시청 앞으로 나선 소위 촛불집회의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광우병과 외교협상 같은 전문적 지식과 정책의 영역에서 지식 엘리트와 정부관료가 주도하는 기존의 지식생산 방식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이 좀 더 특별한 이유는 위로부터의 조직방식이 아닌, 아래로부터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책의 두 번째 키워드는 네트워크이다. 사실

노드와 노드가 링크로 연결되어 구성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네트워크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정보혁명의 맥락에서 논하는 네트워크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된 단순 네트워크(simple network)는 아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네트워크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중심 허브(hub)가 없이도 불특정 다수의 노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복합 네트워크(complex network)이다.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외연은 아메바와 같이 유연하고, 레고 블록처럼 확장과 축소가 용이한 특징을 지닌다. 또한 도마뱀의 꼬리와 같이 어느 한 부분이 잘려나가더라도 생존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마치 거미줄과도 같이 지지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작동방식과 아키텍처를 갖는 복합 네트워크들이 전례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소수자들이 결집하여 지배권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저력의 메커니즘은 디지털 메타 지식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제1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합 네트워크의 저력이 지니는 고유성은 무엇보다도 자기 조직화의 힘(autopoietic power)에서 비롯된다. 위로부터 동원하는 모델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구력과 적응력, 그리고 생존력이라는 차원에서 우월하다. 밖으로부터 미리 프로그램이 주어지거나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화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창발(emergence)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복합 네트워크가 인터넷의 세 모으기 메커니즘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대항세력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마치 웹의 버전이 2.0으로 업그레이드되듯이, ‘권력’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양상을 보는 듯하다.

그런데 중심 허브가 없이 자기 조직화를 추구한다는 속성은 복합 네트워크가 지니는 저력의 원천인 동시에 문제점도 낳는다. 앞서 언급한 디지털 메타

지식의 권력이 사적 비대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처럼, 자율적으로 창발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저력은 공공성(公共性)을 결여할 우려를 안고 있다. 실제로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복합 네트워크가 지닌 자율성의 메커니즘 탓에 공공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소위 ‘네트워크 실패’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의 루머와 악성 댓글이 야기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실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맺는글에서 향후 연구과제의 제기를 겸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3. 똑똑한 골리앗과 다윗들의 군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작고 약한 자가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크고 강한 상대를 때려눕히는 내용들이 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골리앗을 돌팔매질로 이긴 다윗의 이야기일 것이다. 다윗의 영웅담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물리치는 이야기의 대명사 격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골리앗이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도 똑똑하고 동작도 민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하는 다윗이라도 쉽사리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상상을 더해보자. 만약 똑똑하고 민첩한 골리앗을 상대로 하는 다윗이 혈혈단신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의 군대를 이루어 싸운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르면 그 승부의 결과를 단언하기란 쉽지 않게 된다.

앞서 살펴본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의 현실을 이러한 비유에 빗대어 보면,

마치 똑똑한 골리앗과 ‘다윗들의 군대’²⁾가 대결을 벌이는 것 같은 양상이다. 실제로 정보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편으로 디지털 메타 지식의 지배권력이 정교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에 도전하는 복합 네트워크의 대항세력이 창발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으려는 힘과 바로 그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항의 네트워크를 엮어서 맞서려는 힘이 서로 마주 보고 대결을 펼치는 양상이다.

현재 양 진영 중에서 좀 더 소란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것은 대항의 세력을 형성하는 복합 네트워크 쪽이다. 제3부에서 강조했듯이, 인터넷의 확산은 이러한 네트워크에 유례없는 힘을 실어주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뿔뿔 뭉친 누리꾼들과 디지털 신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놀라운 사회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기성품에 자신의 기호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생산과정에 피드백을 넣는 생산자이자 사용자인 능동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종이신문을 능가하는 언론권력으로 군림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 단체들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 참여는 새로운 사회문화 권력의 등장을 예견케 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의 부상에도 기성 지배권력이 그냥 쉽게 물러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특히 기성권력이 실력을 발휘하는 영역은, 제2부에서 소개할 전문기술과 정보처리의 분야이다. 사실 인터넷의 확산은 누리꾼 개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2) ‘다윗들의 군대(an army of Davids)’라는 표현은 글렌 레이놀즈(Glenn Reynolds)의 책 제목에서 힌트를 얻었다(Reynolds, 2006).

누리꾼의 전유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술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서는 누리꾼 개인은 전문지식을 가진 엘리트에게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윈도 운영체제나 구글의 검색 엔진이 없다면 스스로 이러한 디지털 메타 지식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누리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점점 더 복잡·정교해져 가는 전문기술 체계 앞에서 누리꾼 대중 일반에게 그러한 능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나 인터넷과 관련된 전문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기성 엘리트들의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정보혁명 시대를 맞아 서로 완전히 다른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을 지닌,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네트워크들이 뒤섞여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네트워크의 비유를 원용하자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지불식간에 스며들어 오는 네트워크와 아래로부터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간의 경합이다. 이는 지식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창출하는 두 가지 모델, 즉 위계적인 조직모델과 복합적인 네트워크 모델이 벌이는 경합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형태가 다른 두 가지 네트워크들이 경합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 자체의 속성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렇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지배와 대항의 세력이 경합하면서도 조율되는 메커니즘을 ‘네트워크 간의 정치’, 즉 ‘망제정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이러한 망제정치의 과정에서는 단선적인 ‘권력이동(power shift)’이 아니라 맺는글에서 자세히 묘사한, 복합적인 의미의 ‘권력변환(power transformation)’이 발생하고 있다. 필자가 굳이 ‘변환’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3) ‘변환’이라는 용어에 대한 제안과 그 개념에 대해서는 하영선·남궁곤 엮음(2007)을

벌어지는 변화가 지배권력에서 대항세력으로, 또는 위계 모델에서 수평 모델로의 단선적인 이행이라는 시각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보혁명이 일으키는 변화는 어느 한 모델이 득세하거나 수세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두 가지 모델이 겹쳐지는 복합 모델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비유컨대, 위로부터 부과되는 지배권력의 독주(獨奏)에 아래로부터 대항세력이 밀고 들어와서 함께 하는 ‘이중주의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파악된 권력변환은 이 책이 제시하는 세 번째 키워드이다. 정보혁명 때문에 발생하는 권력변환은 다의적이다. 먼저 권력변환은 지배권력이 구사하는 권력의 성격변화를 의미한다. 코드, 표준과 프로토콜 같은 디지털 메타 지식의 형태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권력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논하는 권력변환은 지배의 권력이 아닌 대항의 저력이 창발함을 의미한다.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새로운 담론과 세력의 부상은 권력 주체가 변화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발생하는 권력변환은 궁극적으로 지식으로 보는 권력의 구조, 즉 ‘지식구조’의 변환을 일으키고 있다. 지식구조의 변환은 맺는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차적으로는 지식권력의 분포와 지식권력 담당주체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식을 생산하는 제도나 규범, 그리고 지식담론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지식구조의 변환은 오늘날의 새로운 현상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지식구조의 변환은 유사 이래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인쇄혁명으로 말미암아 근대 초기 서구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날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아 그러한 지식구조의 변환이 다시 한 번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은 지식전문가에

참조.

대한 지식대중의 도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박사님도 모르는 것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온다!’라는 식의 관념을 유포시키고 있다. 지식을 전문가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대중의 도전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모델이 아니라 네트워크 형태의 협업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식생산의 모델이 그 바탕에 깔렸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생산 모델의 기저에는 이를 밀받침하는 새로운 지식담론과 세계관마저도 존재한다.

4.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에 대한 논의의 진화과정을 보면, 정보사회 연구의 초기인 1990년대에만 해도 정보혁명이 지배권력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의 발달은 보이지 않는 통제의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감시권력을 비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인터넷의 확산이 소수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현상 쪽으로 급선회했다. 요즘 ‘인터넷 권력’이라고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누리꾼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아무리 누리꾼들의 힘이 커졌다고 해도 지배권력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지배권력의 견제가 거세다고 해도 이에 대항하는 세력의 위력이 전혀 없이 늘어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결국 정보혁명 시대의 권력변환은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려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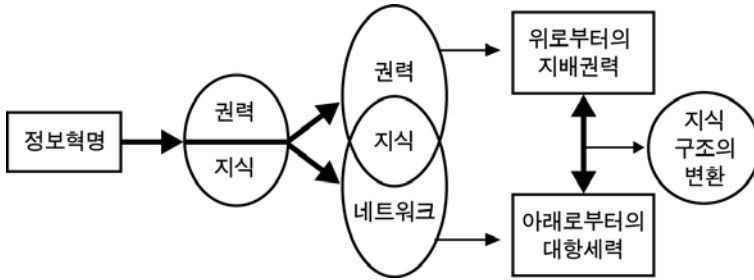
발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을 보는 입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이론’으로부터 힌트를 얻었다. 네트워크 이론의 연구는 현재 주로 물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정치학적 시각을 취한 이 책이 기존의 네트워크 이론에서 착안한 부분은 여태까지의 네트워크 이론이 권력에 대한 논의를 상대적으로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실 네트워크 이론과 권력이론을 접맥하는 작업은 정치학이 이바지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학계에서도 네트워크와 권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노드 기반의 발상을 넘어서 네트워크 이론(또는 복잡계 이론)을 정치학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는 권력이론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와 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이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의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네트워크 정치학의 시각에서 본 권력론이다. 쉽게 말해,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Theory of Network Power, TNP)’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정보혁명의 맥락에서 본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은 ‘네트워크’로 개념화되는 관계적 변수가 21세기 권력변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은 행위자

4)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네트워크 이론과 복잡계 이론의 도입을 시도한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Jervis(1997), Arquilla and Ronfeldt eds.(2001), Rosenau(2003), 민병원(2005), 하영선·김상배 엮음(2006), Braman(2006), Chester and Welsh(2006), 김상배(2008), Kahler(2009) 등을 참조. 특히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본 권력에 대한 논의로는 Hardt and Negri(2000), Grewal(2008), 김상배 엮음(2009), Castells(2009) 등을 참조.

〈그림 3〉 정보혁명과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적 구도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한 실제적인 물질자원이 아니라 노드 간의 링크나 네트워크라고 하는 관계적 맥락에서 비롯되는 권력에 착안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와 노드들을 엮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네트워크 간의 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며, 더 나아가 네트워크 전체에 자신에게 유리한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 과정에서 행사된다.

또한 네트워크 권력은 고정된 물질적 자원이 아니라 유동적인 기술·정보·지식(통칭하여 ‘지식’) 변수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실 우리가 네트워크의 형태로 작동하는 권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도 정보혁명의 도래로 인해서 확산된 기술·정보·지식 네트워크의 존재와 그러한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커뮤니케이션이 전례 없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트워크와 ‘지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권력의 변환이 파악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권력을 ‘지식/네트워크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에 걸친 지식·권력·네트워크의 균열과 재결합 및 경합의 과정을 탐구한다. 이러한 과정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유명한 도식, ‘권력/지식(power/knowledge)’이 변환되는 과

정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원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그림3> 참조).

첫째,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본 정보혁명의 도래는 권력과 지식의 구도에서 지식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다. 오늘날 권력적 함의를 갖는 지식의 존재양식은 4백여 년 전 베이컨의 시대와는 사뭇 다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보혁명은 ‘내용(matter)으로서의 지식’을 담아내는 ‘형식(form)으로서의 지식’ 변환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네트워킹’을 속성으로 하는 독특한 의미의 지식, 즉 ‘지식을 엮는 지식’인 메타 지식의 변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메타 지식의 변환은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달을 바탕으로 한다. 제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코드나 프로토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메타 지식의 부상은 우리가 지식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 대한 개념적 인식마저도 변화시키고 있다. 과학혁명과 지리상 발견 시대를 살았던 근대 과학자들의 지식관과 인터넷으로 ‘지식’을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누리꾼의 인식은 분명히 다르다. 이러한 지식의 성격과 지식관의 변화는 권력의 작동방식뿐만 아니라 권력을 주도하는 세력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보혁명으로 말미암은 디지털 메타 지식의 발달은 ‘권력’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다. 비유컨대, 이는 푸코가 말하는 ‘권력/지식’ 메커니즘의 정교화를 의미한다(Foucault, 1980). 푸코에 의하면, ‘권력’은 ‘지식’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그러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권력/지식이다.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푸코가 제시한 거버넌탈리티(governmentality)에 대한 논의는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발생하고 있는 권력/지식의 정교화를 좀 더 세련된 개념으로 잡아 내려는 시도이다(Burchell, Gordon and Miller eds., 1991; Faubion ed., 2000; Foucault, 2007). 권력/지식의 정교화는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지식이 종전

보다 좀 더 독자적이고 핵심적 위상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화한 메타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지식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제2부에서 살펴볼 네 가지의 사례는 소프트웨어 코드나 검색 알고리즘 또는 프로토콜 등에 대한 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행사되는 권력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지배권력은 제3장과 제6장에서 개념화한 대로, 마치 방사형의 네트워크가 중앙에서부터 방방곡곡으로 퍼져 나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셋째, 정보혁명은 푸코가 탐구했던 ‘권력’과 ‘지식’의 조합, 즉 ‘권력/지식’의 도식에 균열을 일으킨다.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도 푸코가 착목한 권력/지식의 메커니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푸코가 역설했던 것과 같이 ‘지식’을 ‘권력’의 도구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식’은 역으로 ‘권력’에 도전하고 ‘권력’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이 독립한 ‘지식’에 어울리는 파트너는 위계적인 형태로 위로부터 행사되는 ‘권력’이 아니라 좀 더 분산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서 ‘지식’은 아래로부터 구성되는 대항저력을 생성할 계기를 맞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은 예전 같았으면 전문가들이 독점하고 있었을 정보와 지식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지식생산의 문턱을 크게 낮추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지식은 제3부에서 다룰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력이 닫고 선 정당성의 기반을 잠식하는 대항의 담론과 규범을 생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넷째, 정보혁명은 지식이 권력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변환은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의 변화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변환의 동인은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전문가들의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탄생했지만, 일단 그것이 생성되어 대중에 의해서 활용

되는 과정에서 권력과 지식의 관계설정을 반대로 바꾸는 역설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대중화는 권력과 지식의 전통적 유착관계를 와해 시킴으로써 기성권력이 독점하고 있던 자리에 ‘네트워크’로 표상되는 세력을 등장시켰다. 비유컨대, 인터넷은 ‘권력/지식’이 ‘지식/네트워크’로 변환되는 과정을 가능케 한 것이다. 이 책의 제3부에서는 이러한 변환의 과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네 가지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대항적인 힘의 아키텍처와 작동방식은 중앙의 통제가 없이도 각각의 노드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아래로부터의 대항저력을 연상케 한다.

끝으로, 이러한 와중에 디지털 메타 지식을 기반으로 정교화된 지배권력과 새로운 네트워크 행위자들의 대항저력이 경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합을 네트워크 권력의 시각에서 보면, 방사형의 집중 네트워크 형태를 띠는 지배 메커니즘과 탈집중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성되는 대항의 메커니즘 간에 발생하는 망제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보혁명 시대의 망제정치는 ‘위로부터의 생권력(生權力, biopower)’을 행사하는 ‘권력/지식의 메커니즘’과 ‘아래로부터의 생저력(生底力)’을 모색하는 ‘지식/네트워크의 메커니즘’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진화한다. 이러한 두 가지 메커니즘이 경합하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근거는, 제3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보혁명의 ‘망중망’으로서의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두 가지 네트워크의 권력 메커니즘이 경합하는 가운데 정보혁명 시대의 지식구조는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근대 초기 인쇄혁명의 시대에 비견되는 다층적 변환을 겪고 있다.

요컨대 정보혁명으로 말미암은 지식의 변환은 권력의 원천과 작동방식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권력의 분포와 주체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식으로 본 권력구조의 변환 가능성을 예견케 한다. 이러한 권력변환의 기저에는 지식이 차지하는 위상이나 지식과 권력의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변화하는 과정이 깔렸다.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전통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권력’과 ‘지식’의 구도 사이로 ‘네트워크’라는 변수가 비집고 들어오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을 푸코의 도식을 원용해서 묘사해 보자면, ‘권력/지식’으로부터 ‘지식/권력’을 거쳐서 ‘지식/네트워크’가 부상하는 과정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탐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의 새로운 동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상에서 네트워크 권력의 이론적 렌즈를 활용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그 열개를 보여준 정보혁명과 권력변환의 과정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